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19. 12. 04(수, 조간) (인터넷·온라인 : 12.3(화), 낮 12:00 이후부터 보도가능)	담당부서	국가교육회의기획단
배포일시	2019. 12. 3(화)	담당팀장	조민환 팀장 (02-2100-1314)
		담당자	최정윤 장학사 (02-2100-1334)

『인구절벽시대,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』 개최

- 국회의원 박경미·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·전국교직원노동조합·
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·국가교육회의 공동주최 -

-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(의장 김진경)는 국회의원 박경미,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(회장 하윤수),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위원장 권정오),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(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)와 함께 『인구절벽시대,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』 (이하 공동포럼)을 개최한다.
 - 12월 4일(수)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(제2소회의실)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박경미 의원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,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,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, 교육부 관계자, 일반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.
- 이번 공동포럼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올 해 초 4개 단체(교총, 전교조,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, 국가교육회의)가 신년간담회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* 이행의 일환이며, 이번 포럼도 매월 개최된 4개 단체 국과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기획, 준비되었다.
 - * (4개 단체 신년간담회 공동합의문 '19.1.24) "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 우리는 교육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, 교육 현장에 뿌리를 두고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면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"

- 이 날 포럼은 박경미 의원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,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발제와 각 단체에서 추천한 토론자의 지정토론이 이어지며, 김경범 서울대학교 교수(국가교육회의 위원)가 좌장을 맡는다.
-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‘미래교육의 방향’이란 주제로 2030 교육체제의 필요성, 지식 중심의 학력에서 ‘살아가는 능력 중심의 역량’으로의 변화, 학교의 역할 확대와 새로운 ‘교육생태계’ 구축 등을 통한 공감과 연대의 미래교육체제를 제안한다.
 -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‘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교육환경’이란 주제로 협력, 배려, 통합, 교육기회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교육철학의 정립, 교육과정 개선 방향, 교육여건 개선, 교육재정 투자 확대, 교원양성체제 전환, 교육 3주체의 교육권 확립 등에 대해 제안한다.
 -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인 오준영 전북 설천초등학교 교사(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장)는 ‘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재의 노력’이란 주제로 교원 양성 기관 및 임용 방법의 변화,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시각 변화, 교권의 회복 등을 제안한다.
 - 두 번째 토론자인 김향윤 전북 서곡중학교 교장은 기초 기본 학력 보장 및 보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,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시스템,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개별화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교육재정 투자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.
 - 세 번째 토론자인 차영아 교육부 교육거버넌스 개편지원팀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캐나다, 영국, 일본,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고, 우리도 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과 함께 심도 깊은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.
 - 네 번째 토론자인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입시험 자격고사화, 대학 입학 자격 완화와 졸업 자격

강화, 전 사회적 블라인드 채용 확대 등을 통해 학벌 없는 사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한다.



- 마지막 토론자인 이경화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추진자문위원은 교사가 교육 3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,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.

□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공동포럼에 대해 “급격한 사회 변화를 앞에 두고,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보수와 진보가 나뉠 수 없다” 며, “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해 교육개혁의 사회적 협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- 박경미 의원도 축사를 통해 “올 1월 공동합의문에서 시작된 4개 단체의 1년간의 협력은 교육계가 함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, 사회적 합의를 거쳐 희망찬 미래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” 고 말했다.

붙임. <인구절벽시대,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> 소개 1부.

별첨. 공동포럼 포스터 1부.
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교육회의기획단 조민환 과장(☎02-2100-1314), 최정윤 장학사(☎02-2100-13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-

붙임 인구절벽시대,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

□ 배경 및 목적

-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시대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대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교육 체제를 새로운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
-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, 미래 사회를 준비할 핵심 수단이자 목적으로서 교육의 역할 모색
-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안팎의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공동포럼 진행을 통해,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범교육계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구축

□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'19.12.4.(수), 10:00 ~ 12:00 /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
- 공동 주최 : 국회의원 박경미, 한국교총, 전교조,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, 국가교육회의
- 참석 대상 (120여명) : 국회 교육관련 의원, 현장 교원, 시·도교육청 관계자, 교육 전문가, 관계기관 담당자, 학부모, 시민 등

□ 프로그램 안내

시간		내용	비고
9:30~10:00	30'	□ 등록	
10:00~10:02	5'	□ 국민의례 □ 개회사 □ 인사말	
10:05~10:10	5'	□ 축사 □ 기념촬영	
10:10~10:30	20'	□ 발제 1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미래교육의 방향	
10:30~10:50	20'	□ 발제 2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교육환경	
10:50~11:40	50'	□ 지정토론 1 오준영 전북 설천초등학교 교사/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□ 지정토론 2 김향운 전북 서곡중학교 교장 □ 지정토론 3 차영아 교육부 교육거버넌스개편지원팀 팀장 □ 지정토론 4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□ 지정토론 5 이경화 국가교육회의 청년특위추진 자문위원	토론 좌장 김경범 서울대학교 교수
11:40~12:00	20'	□ 자유토론	
12:00		□ 폐회	